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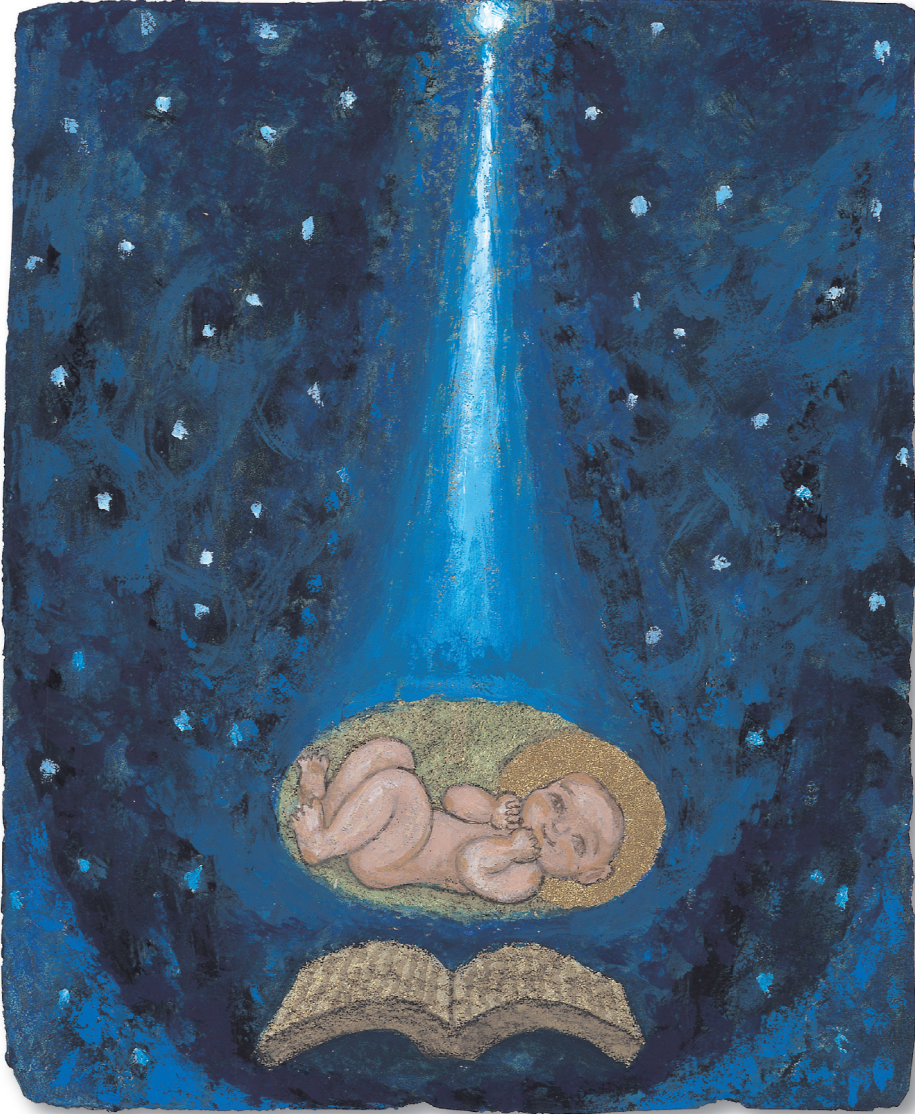
대구 주보

대림 제4주일 2017. 12. 24.(나해) 제2084호

2018년 교구장 사목교서 |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o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루카 1,35) 주님 성탄으로 구원의 신비가 온 세상을 환히 비춥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가정과 이웃에 이루어지도록 성모님처럼 응답합시다. _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제1독서 2사무 7,1-5,8ㄷ-12,14ㄱ,16 **제2독서** 로마 16,25-27 **복음** 루카 1,26-38.

화답송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수태고지(受胎告知) 그리기



천지만 베드로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은 수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불어일으켰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는 잘 알려져 있지요. 우리가 화가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천사가 세 번 말씀을 건네는 동안 마리아가 보인 세 반응, 그 표정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선 놀라면서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을 토대로 단순히 묻고, 끝으로 주님의 종임을 단호히 고백하면서 메시지의 실현을 희망합니다.

천사는 전대미문의 소식,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오히려 기쁨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야말로 은총과 기쁨이 됩니다. 모든 슬픔의 참된 위로, 구원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성모송의 첫 구절과 더불어 새로 귀 기울일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몹시 놀라면서도 이 인사말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첫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 예수님의 여정을 동반하며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순례하는 마리아의 전형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깊이 살핍니다. 과연 마리아는 여기서부터 하느님 말씀을 잉태하신 분, 피조물에게 창조주께서 오시도록 지상에 하느님 자리를 마련하는 분입니다. 경이와 숙고의 표정이 첫 장면의 포인트입니다.

둘째 장면은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이를 세

레자 요한의 탄생 예고 장면과 나란히 놓으면 중요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즈카르야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즈카르야는 자신의 앎을 보증해 줄 표징을 증거로 요구하는 반면, 마리아는 동정과 출산이 연결 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순수한 의문을 표현합니다. 편견 없는 마리아의 표정에는 의심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는 대화와 탐구의 진지함이 스며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천사가 성령의 힘과 하느님의 전능을 선언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종이라 고백하며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메시지의 수용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섭리에만 신경 쓰던 마리아는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데, 그 응답은 단호합니다. 거기에는 마리아가 이미 수없이 되풀이해오던 구약의 사무엘의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영원으로부터 성부께 드리는 예수님의 화답도 들어 있습니다.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마리아의 마지막 단호한 목소리와 표정에 우리의 목소리와 표정을 겹쳐보면 우리도 마침내 수태고지를 우리 삶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그 모습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늘과 땅이 주고받는 가없는 사랑의 화음이 우리 표정에 스칩니다. 

제11장 자유와 비폭력의 삶 : 평화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 우리가 평화를 바라는 데 있어 왜 하느님이 필요한가요?(『두캣』, 270항)

장학금을 타며 거의 전 과목에 만점을 받던 조지아 정교회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내 조국에 넘치게 하라!”고 시를 쓰던 이 신학생은 무신론과 반정부적 성향에 이끌린 나머지, 마지막 학년에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는 대신 신(神)과 같은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훗날 인간 백정이라는 악명을 얻은 독재자요 학살자 이오시프 스탈린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는 겉으로 평화나 정의, 더 나은 세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폭력과 억압의 화신이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회교리서 『두캣』은 평화가 하느님의 근본 속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에페 2,14 참조)이심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의 장벽인 적개심도 허무셨습니다.(『두캣』, 271항)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선하신 질서 안에서 누리는 행복’(『두캣』, 275항)인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신앙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타인을 향해 다가가는 새로운 길을 걸을 때 참 평화에 도달하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살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준비(『두캣』, 274항)가 필요한 것입니다.

2. 평화를 지키려면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지 않나요?

한편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옛 라틴어 경구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물론 교회는 평화와 비폭력을 말하면서 무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무장이 평화를 저절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력, 무장, 조직 등은 국가와 동맹국의 정당방위의 사명을 충당할 정도로, 또한 국제적 위기 극복의 범위에서 적합한 참여를 할 정도로 갖추 수 있으며 그 이상은 항상 악이라고 밝힙니다. 평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방법은 더 많은 무기를 쌓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 배척과 불평등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59항 참조) **필요**

안테나를 십자가로! 아마추어 무선사회 (대구 마르코니회)

걸어 다니며 전화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검색하고, 손 안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마치 꿈만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무선통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개인적인 흥미로 송수신기를 만들어 무선통신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때 형성된 문화가 바로 ‘아마추어 무선’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의 발달로 지금은 비록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도 아마추어 무선활동은 일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를 선교에 활용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교구 내 단체가 있습니다.

1983년 전국 각 교구에서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신자들이 대구대교구에서 첫 모임을 가지고 ‘마르코니회’란 이름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모임이 전국적인 모임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공식 단체로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그 후 열심한 신자들의 직장 이동과 개인 사정으로 쇠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및 대전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많은 신자들이 매주 무선활동을 통한 교회에서의 봉사과 통신을 통한 말씀과 생활나누기 등을 통하여 신앙심 양양에 큰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비신자와 타종교 신자들도 청취하여, 그들에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알리는데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구대교구에서도 교구 내 무선종사자 신자들이 모여 다시 한 번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모습을 되찾고자 1994년 12월 17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아마추어 무선사회(대구 마르코니회)란 이름으로 재 창립총회를 갖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며 1995년 2월 2일자로 교구 인준을 받은 공식 단체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협조로 장비를 구입하여 1995년 7월 1일 DSØYM(무선국 호출부호)이란 이름으로 단체국을 개국하였고 7월 22일 첫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무선을 통한 선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에 정기 라운드 교신을 실시하여 무선상에서 전파를 통해 회원 간의 만남과 선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등록된 60여명의 회원들이 열성적으로 정기 라운드 교신과 교구의 크고 작은 행사(교구 성체 대회, 교구 순교자 현양대회 등)에 이동 운영을 통한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무선사는 국가고시인 시험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며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무전기를 통한 교신을 할 수 있기에 해가 갈수록 회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는 회원수가 급격히 줄어 10여명 남짓한 회원들만 남아있지만 정기 라운드 교신 1,000차를 바라보며 매주 월요일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CQ! CQ! DSØYM 여기는 마르코니! **필문**

문의: 회장 HL5NRZ 김정일 디모테오 (010)3527-9291
<http://cafe.daum.net/ds0ym>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명의 주교 名義主教 <라> Episcopus titularis <영> titular Bishop

주교로 서품되었으나 특정 교구를 교구장으로 책임지지 않는 주교를 말합니다. 그가 대주교일 때는 “명의 대주교”라고 부릅니다. 보좌 주교, 교황청 각 부서의 직책에 종사하는 주교 등이 명의 주교로 임명됩니다.

모고해 冒告解 <라> confessio sacrilega <영> sacrilegious confession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한 고해성사 중에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하여 고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제타 <라> mozeta <영> mozzetta

고위 성직자들이 입는 짧은 망토로 가슴 앞쪽에서 단추를 채웁니다.

목자 지팡이 <라> baculus pastoralis <영> crosier, pastoral staff

전례 때 주교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목자 지팡이”는 목자 임무의 표지이며, 주교는 자기 지역 안에서만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교가 동의하면, 성대한 거행 때 어떤 주교라도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교가 같은 예식에 참여할 때에는 주례 주교만 지팡이를 듭니다.([주교 예절서], 59항)

몬시놀 <라> <영> monsignor

주교품을 받지 않은 가톨릭 고위 성직자에 대한 칭호입니다. ‘나의 주님’이란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이 칭호는 아비뇽 체류 시대에 프랑스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재치권을 행사할 교구를 갖지 않는 교황청 고위 성직자와, 지역 교회 교구장의 추천을 받은 덕망 높은 성직자가 교황에게 몬시놀 칭호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몰아 沒我 <라> ecstasis <영> ecstasy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져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육신의 자연적 상태를 벗어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몰아”, “탈혼”, “황홀경”, “무아경”이라는 말들을 함께 씁니다.

묵상 默想 <라> meditatio, recollectio <영> meditation, recollection

meditatio는 지금까지 써 오던 대로 “묵상”이라 하고, recollectio라는 말의 뜻은 ‘잠심’에 가깝지만 그 쓰임에 따라 “묵상” 또는 “피정”이라고 합니다. 

〈발췌_ 천주교 용어집(2017)〉



12. 22(금) _ 동화사 주지스님 교구청 방문

12. 21(목) _ 곧베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서품식

“살인하지 말라.” (탈출 20,13)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 60항)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나 건강권보다 우선합니다. 낙태는 살인행위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전체 차원에서 실시하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본당과 기관에 비치된 서명용지에 서명합니다. (2018년 1월 18일까지)
- 태아의 생명과 미혼모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대구대교구민들을 위한
신앙 생활의 길잡이

월간 <빛> 정기 구독 및 빛 사랑 후원 회원 모집

교구의 주요 소식들과 신앙 이야기, 복음 나누기 등 알찬 정보와 유익한 내용으로 교구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공식 기관지인 월간 <빛>이 2018년 정기 구독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구성 내용: 사진으로 보는 교구 소식 / 성모당 100주년의 해 / 구약 성경 다시 읽기 / 시 읽어주는 신부 / 함께 사는 세상 / 레지오마리아에 탐방 / 나의 삶, 나의 신앙 / 말씀 살이와 말씀 길라잡이

구독 및 회원 문의: (053)252-5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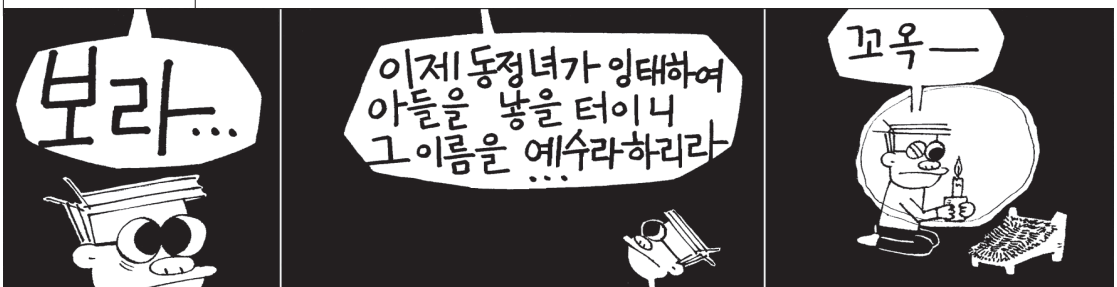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주변에 홀로 사는 이들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 주겠습니다.”

말씀대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미사는 성탄 대축일 미사 관계로 없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2월 26일(화) 19:30 다사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27일(수) 10:00 평화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2월 27일(수) 10:00 죽도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2월 26일(화) 14:00 신암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2월 27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대리구 소식

2018년 3대리구 성경대학 신입생 모집

낮반: (목) 14:00~16:00

저녁반: (목) 19:30~21:30

수강료: 1학기 6만원, 문의: 641-5678

성소 | 피정

성아우구스티노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 대상: 30세 미만 청년

문의: 김 요한 수사, (010)9160-7451

예수고난관상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가능

장소: 청주 예수고난관상수녀회

문의: (043)295-5940

비움과 채움을 위한 젊은이 승년 피정

기간: 12.31(일) 16:00~1.1(월) 10: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앓슴 분원

대상: 만 35세 미만 남녀 청년 / 1만원

신청: (010)9286-2247

교육 | 모집 | 기타

이효진(떼레즈) 수녀의 성탄 연주회

일시: 12.27(수) 19:00

장소: 남대영기념관 빠리니홀

주제: 꿈꾸는 수녀의 행복이야기

문의: 629-1117 / (010)8438-9114

2018 노틀담 첫영성체 교리 교재연수

일시: 1.7(일) 어린이 교재연수

1.8(월) 부모 및 가족 교리 교재연수

시간: 9:00~16:30, 별관 1층 대화합실

신청: 노틀담수녀회, (010)2123-6319

2018학년도 꽃동네대학교 정시 모집

영성·인성·지성을 갖춘 글로벌

복지 인재 양성 대학교

기간: 2018.1.6(토)~9(화)

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간호학과

문의: (043)270-0100

2018학년도 가톨릭상지대학교 정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정시1차: 2018.1.6(토)~16(화)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 3

<http://ipsi.csj.ac.kr>

2018 목포가톨릭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교육계열 4년제 대학

모집인원: '가'군 간호학과 14명

원서접수: 2018.1.6(토)~9(화)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문의: (061)280-5108 / 5150

살레시오 여름 초등 신앙학교(광주)

일시: 2018.7.20(금) 2박 3일, 총7차

장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주제: 랄랄라~성가정 속으로 yo!

접수: 12.20(수)부터 선착순 / 10만원

문의: (062)373-0942 / (010)4141-2271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 모집

기간: 2018.3~12월(2월예비학교운영)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기숙사비무료, 수당지급,

취업지원(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8.4%)

대상: 만 15~30세 남자 / (02)828-3600

청도 성모솔숲마을 피정의집 오픈

매일 오전 11시 미사가 있습니다.

1인 1실, 2인 1실 사용 가능

위치: 청도군 각북면 송내길 166번지

담당: 박상호(요한) 신부

문의: (054)373-3955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내 집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곳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김&송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GARAM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전문공사
• 소방안전관리 대행
• 소방관련 기술교육
대표이사(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대표전화 **(053)600-8485**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노비즈타워 B108호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대구 북구 유동단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당뇨 고혈압!
합병증 예방이 우선입니다.
수 내과
[인공신장실/건강검진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이애현 피임산부인과
www.piumclinic.co.kr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오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H.S. 의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3.0T MRI, CT / 위, 대장 내시경
공단검진 지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행사 | 모임

전인병원 미사

월~토 11:30 / 주일 10:30

문의: 670-5879

바나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와 아픈 이들을 위해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12.28(목) 기도 13:00, 미사 14:00

장소: 계산성당 제1교리실

성령봉사회 송년 은혜의 밤

기간: 12.29(금) 21:00~30(토) 02:00

신년교례회: 1.5(금) 21:00~6(토) 02:00

청소년 성령묵상회: 1.12(금)~14(일)

장소: 고령 월막피정의집 / 신청비: 8만원

신청: 반석기도회, (010)4078-4688

교육 | 모집

시니어평생대학 프로그램 연수

기간: 1.15~2.5 매주 월, 4주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대상: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마감: 1.8(월) / 4만원(교재값 포함)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제4차 약혼자 주말

기간: 2018.2.23(금)~25(일)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http://dcy.co.kr>

윤일성당 교중 오르간 반주자 모집

문의: 윤일성당, 552-4959

가정을 위한 기도회와 미사

일시: 매월 마지막 주일

일정: 14:30 기도회(성인)자녀(프로그램)

16:00 가족미사

장소: 성토마스성당(교대역 2번 출구 앞)

문의: 가톨릭문화관, 476-6211

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성토마스성당 문화관

문의: (010)3817-5255

<http://www.footfather.com>

대가대평생교육원 겨울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학·아동학·실습포함)

음악원(4·6·8주 과정, 1:1레슨)

취미·교양 / 전문가 / 자격증과정

마감: 12.30(토) / 문의: 660-5554~7

<http://conedu.cu.ac.kr>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15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12월_장숙희(루시아) 수녀

1월_임미숙(엘렉타) 수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수도원 건축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완공

되기까지는 공사비가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대구가르멜수녀원, (010)3375-4408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자격: 35세 이상 미혼 여성

4년제 대학졸업자 중 가톨릭신자

근무조건: 기숙사 내 거주, 2년 계약

마감: 1.12(금) / 문의: 859-4063~4

<http://dormitory.cu.ac.kr>

해성유치원 버스 기사 채용

문의: (010)7529-2696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석조(크리스티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18년 탁상용 신앙캘린더 판매

판매가: 7천원

판매처: 교구 문화홍보실, 성바오로

서원, 성바오로딸서원, 성바오로딸

범어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

콜라따 성물방, 동천성당 성물방, 월

성성당 성물방, 범어대성당 성물방

2018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대구연세안과

·백내장수술 ·아이디자인 라식
·노안 수술 ·망막·녹내장 검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연세대외래교수

☎(053)626-8881~5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말기암 통증 및 증상 조절

재능 및 기타봉사자 상시 모집

사랑나무의원 원장 천 은 수(가브리엘)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동구시장 맞은편)
24시간 상담 · 입원 (053)217-9500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 · 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유리퍼판 스타일 캐주얼 레스토랑

micomious 무무스

스테이크(한우)·파스타·화덕피자·샐러드바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13(수성못)
예약문의 762 7555 | 김경희(스테파니아)

다비드제통외과

비수술적 척추,관절,신경,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에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 영 덕 (다윗)

Tel : (053)351-1704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운암역에서 도보 10분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